

중국 물류 리포트

CHINA LOGISTICS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3-9호

2013년 9월 2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중국 물류 동향

■ 2012년 중국 전력 발전량

(억 KWh, %)

구 분	발전량	증가율	비중
화력	39,108	0.3	78.6
수력	8,641	29.3	17.4
풍력	1,004	12.6	2.0
원자력	982	35.5	2.0
기타	39	345.9	0.1
총 발전량	49,774	5.2	100

주 : 기타 중 태양열 발전이 35억 KWh.

자료 : 중국전력기업연합회.

■ 2012년 중국 산업별 전력 사용량

(억 K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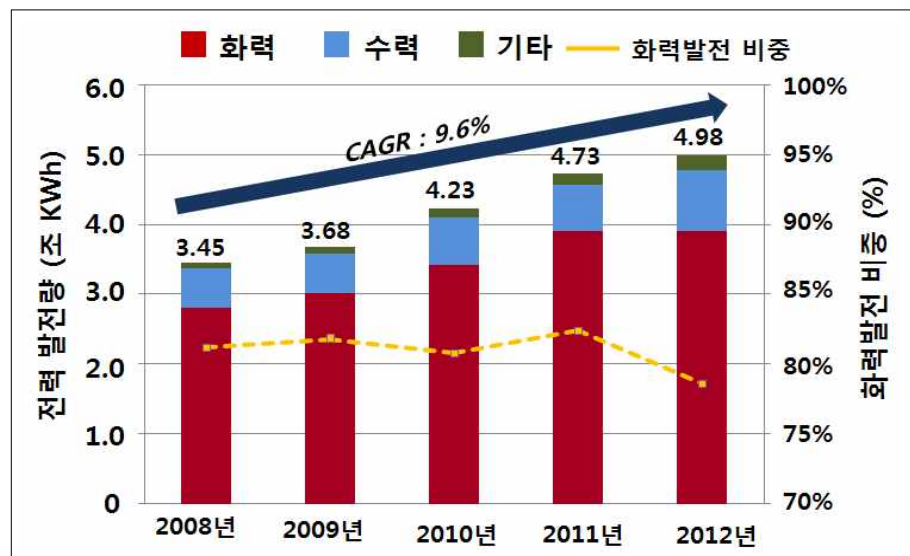
구 분	사용량	증가율	비중
1차 산업	1,013	0	2.0
2차 산업	36,669	3.9	73.9
3차 산업	5,690	11.5	11.5
주민생활	6,219	10.7	12.5
총 사용량	49,591	5.5	100

자료 :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중국물류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물류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주 : 기타는 원자력, 풍력, 태양열, 지열, 조력 등 포함.
 자료 : 중국전력기업연합회(www.cec.org.cn) ; KMI 작성.

2012년 중국 전력 발전량 4.98조 KWh, 화력발전 비중 감소

2012년 중국의 전력 발전량은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4.98조 KWh(2012년 한국 전력 발전량 5,095.7억 KWh)로,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9.6%의 높은 연평균증가율(CAGR)을 기록했고,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전력 발전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발전 형태별로는 화력 발전량이 3.9조 KWh로 전체 발전량의 78.6%를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 82.4%에서 3.8%p 하락했다. 반면 2012년 수력 발전량은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한 8,641억 KWh로 전체 발전량의 17.4%를 차지했다. 또한 원자력과 풍력 발전량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6%와 35.5% 증가한 986억 KWh와 1,004억 KWh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수력발전과 기타 발전 방식의 생산력 증가, 대체 에너지원의 대두 등이 석탄 수요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석탄 생산량 및 수입량의 증가로 인해 중국 석탄가격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2월 석탄가격과 전력가격 연동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발전용 석탄 시장화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고,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석탄수입 제한 등이 포함된 「상품석탄 질량 관리방법(초안)」을 발표하는 등 석탄시장 관리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 중국 물류 동향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8-23	08-30
종합지수	1,133.04	1,126.00
일본 향로	809.90	810.63
구주 향로	1,518.83	1,500.39
미서부 향로	1,070.16	1,065.60
미동부 향로	1,223.94	1,227.72
한국 향로	689.62	653.69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8-23	08-30
종합지수	1,033.23	1,067.55
석탄	1,113.99	1,061.84
곡물	716.61	822.55
금속광석	880.03	883.39
정유	1,227.03	1,227.03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중국 물류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하이룽장성 물류발전 및 환동해권 운송 루트 현황

1 중국 동북진흥전략 10주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 준비

2003년 10월, 중국 국무원의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로 본격 시작된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¹⁾. 동북진흥전략은 중국 서부대개발, 중부굴기전략과 비견되는 국가급 프로젝트로서, 지난 10년간 동북지역은 경제성장률, 고정자산투자 등 여러 거시경제 지표에서 중국 평균 이상의 빠른 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교통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국가발개위에서는 「동북지역 물류업 발전계획」(2011년)을 발표하는 등 물류산업의 하드·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해 동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동북지역은 한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과 인접한 지정학적 우위에 힘입어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동북아시아를 향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계획 강요(2012-2020년)」(2012년, 이하 「개방계획 강요」)에서도 잘 나타난다²⁾.

2 하이룽장성 물류산업 발전 가속화

중국 최동단에 위치한 하이룽장성은 동북진흥전략 추진 10년간 랴오닝성, 지린성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³⁾, 동기간(2003~2012년) FDI 유치액도 중국 성·시 중 25위(랴오닝성 3위, 지린성 22위)에 머무는 등 대외개방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하이룽장의 사회고정자산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은 30.7%로 동기간 지린성(20.6%)과 랴오닝성(24.8%)에 비해 높았으며, 「12·5」기간 「8대경제구(八大经济区)」 건설사업이 중점 추진됨에 따라 하이룽장의 인프라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⁴⁾.

- 1)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지역별주는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하이룽장성)을 중심으로 하나, 2007년 중국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동북지역진흥계획」에서 네이멍구자치구 동부지역까지 포함한 「3성 1구」로 확대됨, 필자주.
- 2) 「개방계획 강요」는 동북지역과 동북아국가들간의 지역협력 강화 및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며, ① 2015년까지 중국 동북지역의 무역액 2,550억 달러(대 동북아국가 무역액 760억 달러) 및 FDI 실질이용액 500억 달러(동북아국가 FDI 60억 달러) 달성, ② 2020년까지 무역액 3,900억 달러(대 동북아국가 무역액 1,170억 달러) 및 FDI 실질이용액 770억 달러(동북아국가 FDI 9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국가발개위, 「동북아시아를 향한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계획 강요(2012-2020년)」.
- 3) 2003년~2012년 동북 3성의 GRDP 연평균증가율(CAGR)은 랴오닝성 17.1%, 지린성 18.9%, 하이룽장성 13.4%, 「2004년 중국통계연감」과 각 성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이용 계산.
- 4) 「8대경제구(八大经济区)」는 ① 하마치(哈大齐) 공업벨트건설구, ② 동부 화력발전기지건설구, ③ 동북아경제무역개발구, ④ 싱안링(兴安岭) 생태기능보호구, ⑤ 양대평원 농업종합개발실험구, ⑥ 북국풍경특색관광개발구, ⑦ 하무수이둥(哈牡绥东) 대 러시아무역개발구, ⑧ 하이테크산업 집중개발구임, 하이룽장성 인민정부, 「하이룽장성 "12·5" 계획」.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 중국 물류 동향

■ 2012년 헤이룽장성 주요 국가별 교역액 (억 달러, %)

국가	금액	증가율
러시아	213.1	12.2
EU	22.5	-33.3
미국	21.1	-38.3
ASEAN	15.7	-9.8
사우디 아라비아	15.6	81.5
앙골라	9.3	32.5
브라질	8.5	18.1
한국	7.7	-9.5
인도	5.7	-46.4
일본	5.6	-18.0

자료 : '2012년黑龙江省外贸情况分析'.

■ 2012년 헤이룽장성 주요 수입품 (억 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원유	164.6	15.8
농산품	15.8	14.6
전기기계제품	13.0	15.8
철광석 및 정광	6.7	-25.9
비료	6.1	106.2

자료 : 상동.

■ 2012년 헤이룽장성 주요 수출품 (억 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전기기계제품	43.9	-16.4
의류·악세서리	23.5	-17.1
신발	10.8	5.8
방직실, 직물 및 제품	9.4	69.6
농산품	8.0	0.3

자료 :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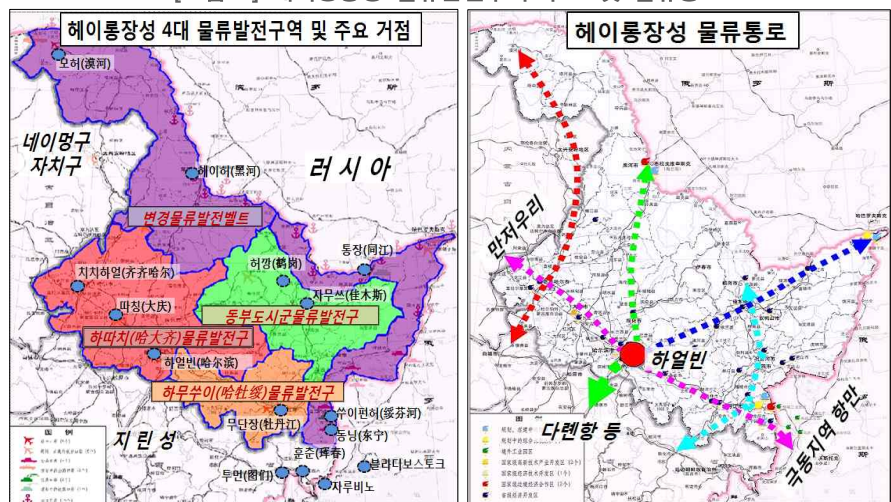
또한 2012년, 헤이룽장성은 「헤이룽장성 물류업 발전 “12·5” 계획」(이하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물류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중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기 「계획」에서는 헤이룽장성의 주요 산업에 기반을 둔 장비제조 물류, 석유·석유화학 물류, 석탄물류, 식품·의약품물류, 목재·목제품물류, 농업 관련 물류 등을 중점 육성하며, 헤이룽장성을 4대 물류발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4대 물류발전구역은 아래 [표 1]과 같이 하파치(哈大齐) 물류발전구, 하무쑤이(哈牡绥) 물류발전구, 동부도시군 물류발전구, 변경물류발전벨트로 구분되며, 각 구역 주요 산업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물류영역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표 1] 헤이룽장성 물류발전구역 및 주요 산업 관련 물류영역

물류발전구역	주요 도시(거점)	주요 산업 관련 물류
하파치 물류발전구	하얼빈, 파칭, 치치하얼, 쑤이화(绥化) 등	하이테크, 장비제조, 석유화학(파칭), 의약품, 농업 관련 물류
하무쑤이 물류발전구	하얼빈, 무단장, 쑤이펀허, 동녕 등	석탄, 농업, 장비제조, 방직 임농업, 건축자재 관련 물류 및 보세물류, 대러시아 국제 물류
동부도시군 물류발전구	자무쓰, 허강, 지시(鸡西), 쌍야산(双鸭山) 등	석탄, 농업, 장비제조, 임농업 관련 물류
변경물류발전벨트	쑤이펀허, 동녕, 통장, 헤이허, 모허 등	목재, 광물, 제련, 식품, 건축자재, 기계전자, 방직 관련 물류 및 보세물류

자료 :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헤이룽장성 물류업 발전 “12·5” 계획」.

[그림 1] 헤이룽장성 물류발전구역 구도 및 물류통로



자료 :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헤이룽장성 물류업 발전 “12·5” 계획」 ; KMI 작성.

3 대 러시아 물류거점 쑤이펀허(绥芬河)

헤이룽장성은 3,000여 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2012년 헤이룽장성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213.1억 달러로 중국 대 러시아 전체 수출입액의 24.2%이자, 헤이룽장성 전체 수출입액의 56.3%에 달한다. 또한 내륙성으로서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Nakhodka), 보스토치니(Vostochny) 등 극동 러시아 지역 항만들은 헤이룽장성에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최단 루트이다.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 중국 물류 동향

■ 2011년 쑤이펀허 통상구 화물 통과량 (만 톤)

구 분	수출	수입	합계
도로	33.5	25.6	59.1
철도	32.1	597.8	629.9
합계	65.6	623.4	689.0

자료 : 「2012年中国口岸年鉴」

■ DBS 항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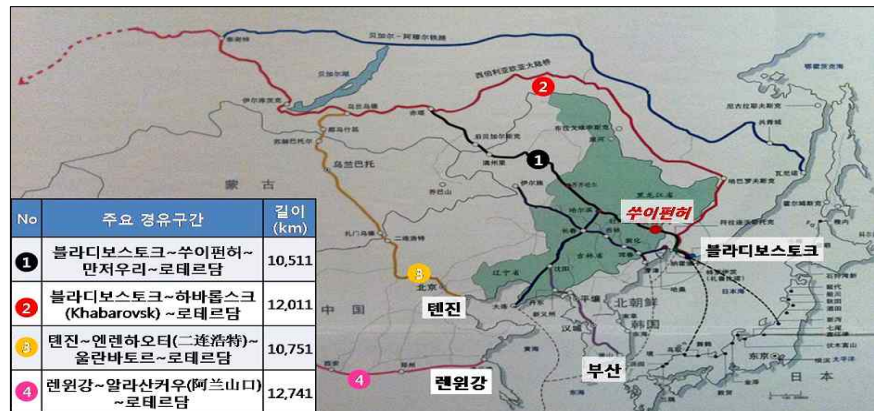


자료 : 동해시청

헤이룽장성 동남부에 위치한 쑤이펀허(绥芬河)시는 도로와 철도로 러시아 국경 포그라니치니(Pogranichnyi)와 연결되며, 우수리스크(Ussuriysk, 거리 약 100km), 블라디보스토크(거리 약 210km)와 인접해있다. 연간화물통과능력 1,100만 톤에 달하는 쑤이펀허 통상구는 헤이룽장성에서 가장 큰 통상구로서, 2011년 기준 수출입 화물량은 689만 톤이며 그중 러시아에서 철도로 들어오는 목재·광물 등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9년 쑤이펀허시에 종합보세구(면적 1.8km²)가 설립되었다. 쑤이펀허종합보세구는 국제환적, 국제배송, 국제구매, 중계무역, 상품전시·판매, 수출입가공, 보세창고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18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쑤이펀허는 도로, 철도를 통해 성내 주요 배후지인 무단장, 하얼빈을 거쳐 네이멍구 만저우리 통상구까지 연결된다. 철도의 경우, 만저우리에서 출경한 후 러시아 치타(Chita)에서 TSR 노선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렌원강항, 텐진에서 출발하는 TCR, TMGR 노선에 비해 거리상으로 짧다. [그림 2] 참고.

[그림 2] 동북아~유럽 주요 철도노선 노선 비교



자료 : 쑤이펀허시 ; KMI 작성.

4 환동해권 복합연계운송 현황 및 문제점

블라디보스토크~쑤이펀허~만저우리~러시아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 운송 루트는 ‘GTR(광역두만강지역, Greater Tumen Region)-쑤이펀허 운송통로’라고 지칭되며¹⁾, 한국의 대 중국·유라시아 운송루트로도 의의를 지닌다. 헤이룽장성~한국 화물 역시 이 통로를 이용한다면, 다련항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운송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부산항 및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및 보스토치니항으로 정기 화물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DBS크루즈웨리는 동해시~블라디보스토크~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연결하는 정기 카페리선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상기 노선은 러시아 극동지역 및 TSR을 통한 중앙아시아, 유럽행 화물 중심이며, 쑤이펀허를 통한 중국 인/아웃바운드 화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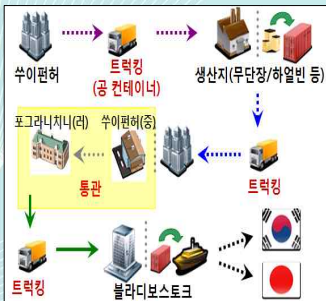
1) 2005년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로 구성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이 출범되었으며, 광역두만강지역(GTR) 운송통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됨. GTR 운송통로 중, 중국 동북지역을 통과하는 운송통로는 크게 6개가 있으며, 그 중 블라디보스토크항~쑤이펀허(헤이룽장성)~시베리아로 대표되는 ‘쑤이펀허 통로’와 러시아 자루비노항~훈춘(지린성)~몽골로 이어지는 ‘투먼 통로’는 그 배후지 및 인접성 때문에 상호경쟁적인 부분이 존재함, 필자주.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 중국 물류 동향

■ 쑤이펀허 ~ 블라디보스토크 ~ 한·일 물류 프로세스



자료 : DBS크루즈웨이.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헤이룽장성~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항~한국의 운송비가 헤이룽장성~다롄항~한국 운송비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¹⁾.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산업 구조, 중국-러시아간의 복잡한 통관절차, 경쟁노선인 러시아 자루비노~훈춘 노선의 존재, 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간의 숙련된 물류업체 부재 등이 있다. 그밖에 중·러간의 정치적 리스크도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운송루트에 대한 모험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5 거시적 환경 조성, 헤이룽장성·쑤이펀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

10년간의 동북진흥전략은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 토대를 공고히 다져놓았다. 현재 새로운 10년의 동북진흥전략이 초안 작업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들에 대한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동북지역의 새로운 주요 전략 내용으로 주목받던 「헤이룽장 및 내이멍구동북부지역 변경개발개방계획」이 최근 국무원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²⁾, 헤이룽장성의 향후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 신정부 출범 후, 중·러 관계는 ‘전례 없는 최고 수준’을 과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혹은 계획 중인 중·러간 협력 사업들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1년 러시아의 WTO 가입은 중국의 대 러시아 문호로서 헤이룽장성의 가치를 지속 상승시키고 있다. 2013년 8월, 쑤이펀허에서 개최된 ‘제 1회 중국·쑤이펀허 국제통상구무역박람회’에는 중국 각지 및 해외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지의 발전 분위기를 증명했다.

풍부한 자원 현황, 국가 전략에 편승한 정책 혜택 및 고조된 투자 분위기, 빠른 경제성장에 기인한 내수시장 확대, 동북아 각 국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운송 네트워크는 생산지 및 시장으로서 헤이룽장성이 가지는 강점이다. 향후 각 국 중앙·지역정부간의 긴밀한 교류 및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한 물류기업들의 노력으로 현존하는 통관제도 및 상업적인 문제점 개선이 전제된다면, 한국·일본~극동 러시아~쑤이펀허~헤이룽장성을 연계하는 환동해권 물류루트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호한 거시적 환경이 조성된 현재 우리기업들도 헤이룽장성·쑤이펀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다.

김민한 인턴연구원 · 김세원 연구원 · 김범중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gmail.com

1) 이는 높은 항만·통관료가 한몫하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트럭킹 시장이 일부 러시아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이유로 트럭킹 운임 역시 높음, 전문가 인터뷰.
2) 呼伦贝尔市发展和改革委员会, “国务院审批了《黑龙江和内蒙古东北部地区沿边开发开放规划》给我市带来重大发展机遇”, 2013. 8.26.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 중국 전력 발전량과 석탄 수요
- ▶ 중국 물류 포커스
: 동북진흥전략 10년,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1]
- ▶ 중국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동향

경제 · 정책

- 중국, 9월부터 새로운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제도 실시
- 국무원, 「선박공업구조조정 촉진·전환·업그레이드 가속 실시방안(2013-2015)」 발표
- 국가발개위, 단계적으로 정유 등 6개 중점영역 가격 개혁 추진
- 중국, 2014년 석유수입 세계 1위 예상
- 중국 세계 2위 옥수수 수입국 등극 예상
- 7월 중국 수출입 호전, 동기대비 7.8% 증가
- 중국 석유 수입량 감소, VLCC 선주들에게 타격 예상
- 2012년 중국 건축폐기물 재활용 5% 미만

해운 · 항만

- 「중치세 개혁」, 중국내 외자 선사들에게는 불리
- 상하이 선적항 환급정책 시범실시 1년, 성공적 평가
- 닝보, 올 상반기 ECFA(중-타이완 경제협력 기본협정) 화물량 중국 1위
- 저우산(舟山)시, 항운발전정책 발표
- 댜오강항-칭다오항 MOU 체결, 시장개척 등 방면에서 협력 진행
- 옌타이항-코스코 퍼시픽, 다용도부두 협력 운영 계획
- 옌타이, 내수무역 컨테이너 환적항 구축 계획
- 잉커우항, 상반기 컨테이너 Sea&rail 복합 연계운송 중국 1위

- 교통운수부, 중국-타이완 해운시장 감독 관리 강화
- 상하이 와이까오차오조선, 1.6만 TEU급 선박 건조 계약
- CNPC-CSSC 협력 체결, 해양플랜트 및 선박 건조 등 협력 가속화
- 후베이성 우한(武漢)신항, 1-7월 컨테이너 환적량 동기대비 34% 증가

종합 물류

- 내년 철도 운임 인상 예상
- 상반기 중국물류산업 분석, 전반적인 성장속도 둔화
- 상하이, 빅데이터 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획
- 장강항운, 후베이성 우한에 자동차 물류단지 건설 계획
- 우한 「국가물류중심 건설 실시의견」 통과, 3년 내 중국 국가물류중심 기반 조성 계획
- 월마트, 내년 윈난성 쿤밍에 물류센터 착공 계획
- 국가발개위, 전자상거래물류 시스템 개선 의지 표명
- 중국 국내항공운송 시장 개방 확대, 노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전망
- 중국 철도건설 재가속, 올해내 철도 총길이 10만 km 돌파 예상
- 초상국, 순평(順風)택배에 전략적 투자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